『사월의 정원』 독후 활동지



아일라 맥거킨 글 | 카탈리나 에체베리 그림
책빛 | 40쪽 | 4~7세 | 100세 그림책

> **절망의 시간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감동의 여정**
> **“어두운 먹구름도 햇빛을 품고 있기 마련이야.”**

활동1 책 읽고 이해하기

다음 문제를 풀며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생각해 보아요.

1. 사월이 이사 가던 날의 날씨는 어땠나요?

2. 엄마는 사월에게 새 집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나요?

3. 엄마는 사월에게 무엇을 심어 보라고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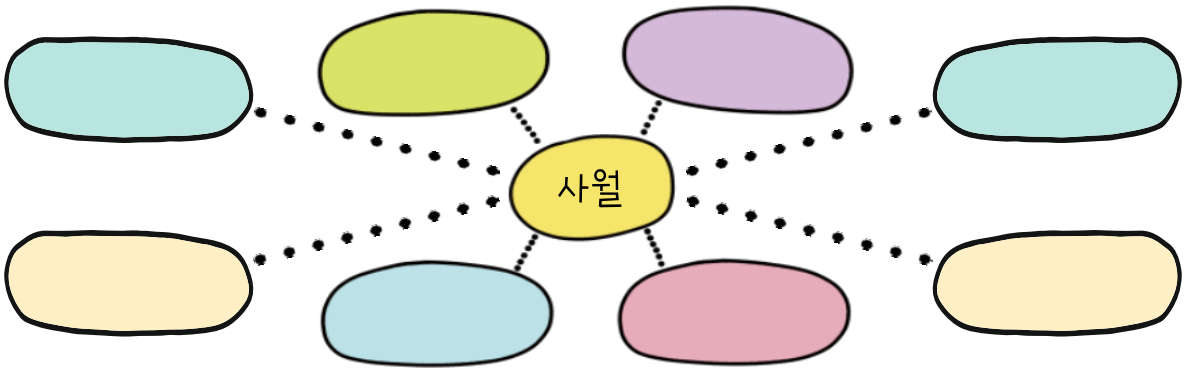
4. 책 속에서 사월이 느낀 감정 중 하나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 사월의 정원에 피어날 꽃들을 상상해 보고, 그 꽃들을 그려 보세요.

활동2 내 이름은 사월

이 책의 주인공 사월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내지요. 주인공의 이름 '사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아요.

1. 주인공의 이름 '사월'은, 일 년 열두 달 중 '4월'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4월'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기분, 색깔, 물건, 냄새 등 떠오르는 것을 모두 써 보아요.



2. 그렇다면 주인공의 이름이 '사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 쓴 것들과 관련지어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3.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의 이름을 새로 짓는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지은 새로운 이름과 그 이유를 써 주세요.

새로운 이름:

그 이유:

활동3 난민들이 사는 곳

폭풍우가 치던 밤, 사월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다급하게 어디론가 떠났지요.
굳게 닫힌 여러 문이 있는 큰 집, 그곳은 사실 난민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난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과 같은 난민 어린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문제에 답하며 생각해 봅시다.

1. 난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전쟁, 폭력, 자연재해 등)

---

2. 난민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두 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

3. 난민이 된 친구가 여러분의 학교에 전학 온다고 상상해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그 친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두 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 난민 친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4. 한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책이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을 얘기해 봅시다.

5.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에서 난민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해요.
지구의 환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활동4 희망이란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연약한 싹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씨앗은 싹을 틔우기 전까지, 땅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다음 질문에 답하며 생각해 봅시다.

1.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요? 희망을 느낀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2. 사실 새싹이 돋아나기 전까지, 씨앗 안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싹이 씨앗을 뚫고서 흙 위로 올라와야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씨앗이 싹을 틔워 흙 위로 올라오기 전 씨앗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상상해서 그려도 좋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습을 찾아봐도 좋아요.



3. 다음은 책에서 가져온 글의 일부입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꽃이 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해.
꽤 오래 기다려야 할걸."
사월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언젠가 엄마가 말했지요.
(ㄱ)"희망은 마법 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가져다주거든."

아주아주 오래전에 엄마는 내게 말했지요.
"조금만 참으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월은 (ㄴ) 왜 좋은 일은 꼭 참아야만 오는지 알고 싶었어요.
지금 바로 오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3-1. 위 글의 밑줄 친 (ㄴ)처럼, 왜 좋은 일은 꼭 참아야만 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린 땅 밑 씨앗 그림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고 글로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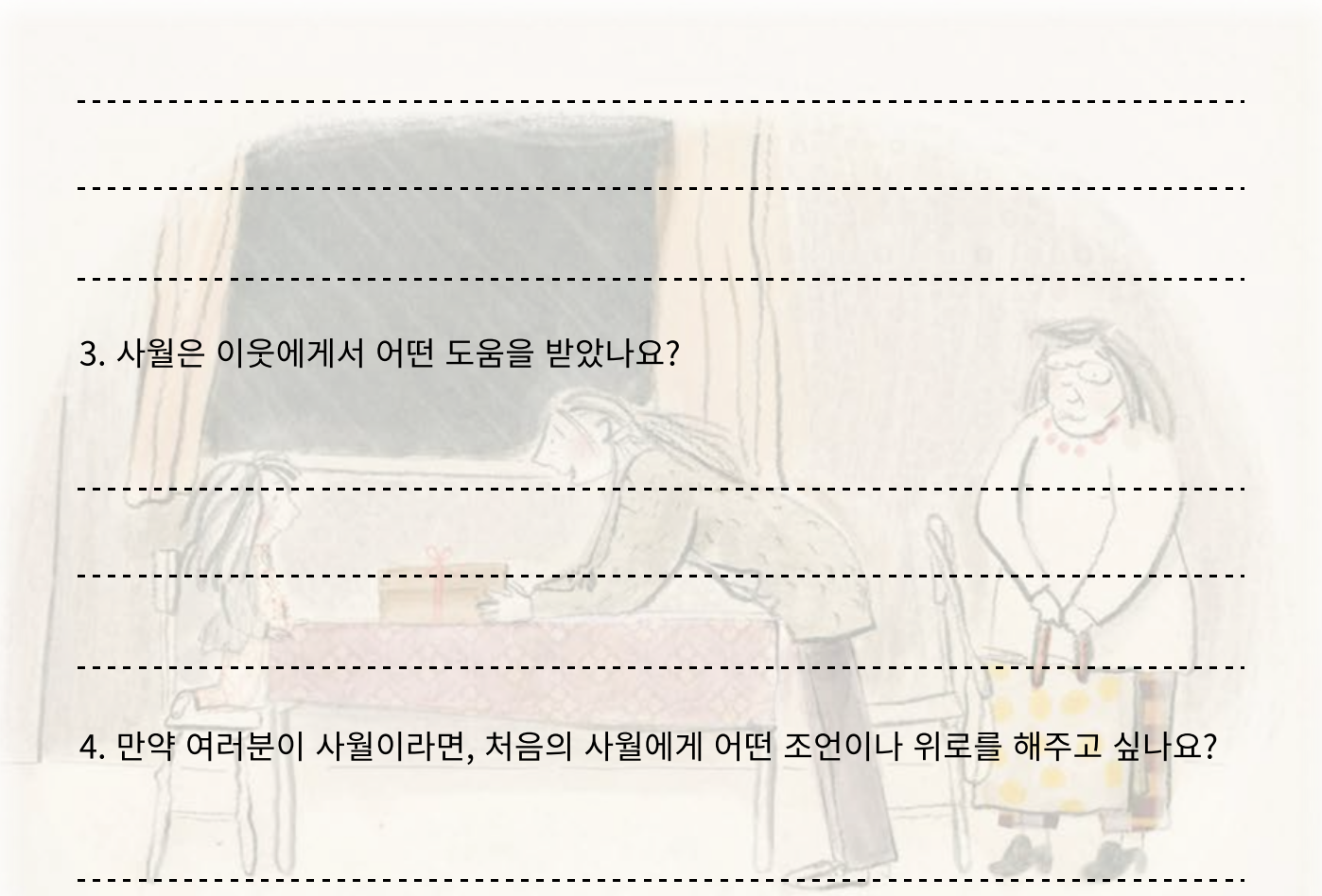
3-2. 위 글의 밑줄 친 (ㄱ)에서, 엄마가 말한 "희망은 마법 같아"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희망이 마법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활동5 사월이 사월에게

우리는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내 주변과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지요.
이 이야기의 처음 사월과 끝의 사월은 같은 사람일까요?
만약 다르다면, 사월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1.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희망이 주는 힘은 어떤 것일까요?

2. 힘들었던 순간에 사월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3. 사월은 이웃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4. 만약 여러분이 사월이라면, 처음의 사월에게 어떤 조언이나 위로를 해주고 싶나요?

위의 질문과 대답을 바탕으로, 내가 사월이가 되어 사월이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이야기 끝의 사월이가 이야기 처음의 사월이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월에게, 사월이가.

활동6 희망을 전하는 선물

이 이야기에서 사월이 심은 꽃씨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월에게 찾아들어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믿게 하지요.
이 '꽃씨 화분'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 보고,
그 선물이 왜 희망을 상징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선물의 이름: 장화 〈예시〉

설명: 이 장화는 날이 쨍쨍한 지금은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아주 비가 많이 와서 발이 푹푹 젖는 날, 그런 힘든 날에 발이 젖지 않게 해 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다 아무 쓸모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장화가 있다는 걸 잊지만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요.

선물의 이름:

설명:

선물의 이름:

설명:
